

# 전남농기원, '비파알' 기능성 소재화 추진

## 재배·가공 연계해 지역 특화작목 육성 추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항산화·항염증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비파알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화에 나섰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형란)은 재배기술 확립과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액티브에이징 시장 확대에 따라 천연물 기반 고기능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능성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원료 산업 경쟁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한 비파알의 안정적 생산과 산업화 기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남 지역의 비파 재배 규모는 83.8ha로 144농가에서 연간 156톤이 생산되고 있다.



▲전남농기원이 자체 개발한 비파신제품 조아비(전남농기원제공)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인 '국내 특용자원 및 지역특화작목 활용 기능성 소재개발'에 참여해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남농업기

술원을 중심으로 강원농업기술원과 서울대, 고려대, 동의대 등 대학, 네오뉴트라와 콜마BNH 등 산업체가 공동 참여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에는 4억5500만 원이 투입된다.

연구는 비파 품종별 잎 생산성 구명, 시비 조건에 따른 기능성 성분 변화 분석, 적정 수확량 설정, 농가 실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2.8a 규모의 비파알 전용 생산 시험포장을 조성하고, 우르솔릭산 함량이 높은 국내 육성 품종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량과 기능성 성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시비 기준을 마련하고, 농가 실증을 거쳐 재배단지 조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덕수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은 "비파알의 기능성 소재화를 통해 생산·가공·산업화로 이어지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경기도농기원, 수출 접목선인장 신제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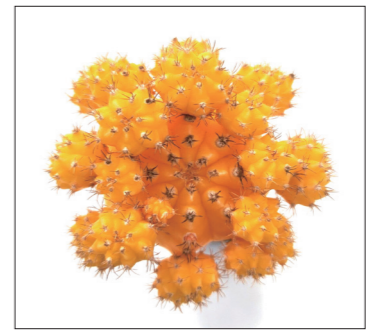
## 품종출원 후 수출농가 종묘 보급 추진

올해 개발한 비모란 신제품은 빨간색 '레드참', 노란색 '엘로우참', 주황색 '오렌지참' 총 3종이다.

'레드참'은 적색의 편원형 품종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식물체의 너비와 높이가 큰 편이다. 특히 자구(어린 가지) 수가 32개에 달해 지금까지 개발된 품종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높다.

'엘로우참'은 황색의 편원형 품종으로 조직이 단단해 장기 수송에 적합하다. 종묘 생산용으로 활용할 경우 연간 20개 이상의 자구 생산이 가능하다.

'오렌지참'은 재배 환경에 따른 색상 변화가 거의 없는 진한 주황색의 원형 품종이다. 자구



▲접목선인장비모란엘로우참

수는 19개로 생산성도 확보했다. 비모란 3품종은 모두 바이러스 검정을 거쳐 무병 종묘 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품종출원 후 수출농가 사용료를 내고 증식·판매할 수 있도록 종묘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취는 '바나나 선인장(Banana cactus)'으로도 불리는 종이다. 이번에 개발한 '골드참'은 진한 황색의 원주형 품종으로 줄기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옷자람 현상이 적고 자구 발생이 많아 항공 수출에 적합하다. 가시가 흰색이면서 부드러운 특성을 지녀 소비자 선호도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신제품 개발이 수출 농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산취 신제품 홍보를 강화해 일본과 미국 시장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 경북도, 우기대비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저수지, 배수장 등 여름철 재해예방 총력

경상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주요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로 지역별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기에 대비해 도내 저수

지, 배수장, 용·배수로 등 재해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경북도는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기간 내 현장 점검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저수지와

배수펌프장 등 주요시설물의 작동 및 관리 상태, 위험상황 발생 시 선제적 시설물 가동·통제와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상습 침수지역 및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의 배수로 정비 상황, 수방 자체 확보·관리 상태, 공사 현장 비상연락망 등 안전관리 대책이다.

한편, 14일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의성군 금북저수지와 의성동부지구 다목적 방촌유수개발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현장관리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이 기자 midal0210@naver.com



▲우기대비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영농철 상추 심기 일손돕기 전개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15일 하서면 소재 상추 재배 농가를 찾아 상추 심기 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상추 심기를 지원하며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손돕기는 적기 파종을 통해 농작물 품질 유지

및 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작업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땀 흘리며

농가의 고충을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농촌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작은 손길이 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부안군제공

# 평택시, 벼 드문모 심기 재배 기술 시연회 개최

## 육묘 및 이앙 작업 시간 약 29% 단축 효과

평택시는 지난 15일 진위면 '김순영'농가 시범사업장에서 '2026년 벼 드문모 심기 재배 기술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벼 드문모 심기'의 현장 적용과 기술 확

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서는 드문모 전용 이앙기를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37주, 50주, 70주로 재식밀도를 구분한 현장 시연이 진행됐다.

'벼 드문모 심기 재배 기술'은 기존보다 모 간격을 넓히고 포

기수를 줄이는 대신, 포기당 이삭 수와 입수 증가를 유도해 전체 수확량을 유지하는 재배 기술이다.

이를 통해 10a 기준 육묘 상자수를 22~30개에서 6~10개로 감축하여, 육묘 및 이앙 작업 시간이 약 29%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넓은 재식거리로 인해 통풍과 채광이 좋아져 병해충 발생이 줄

고, 약제 사용량 감소 등 친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벼 드문모 심기 재배 기술 보급으로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되며, 많은 농업인이 벼 드문모 심기 재배 기술을 영농 현장에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인제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삼점삼' 도입

인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플랫폼과 협력에 나섰다. 군은 세금·병원비 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점삼'의 그룹사인 디투홈과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추가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하고, 20일부터

해당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디투홈은 삼점삼 플랫폼과 연동해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삼점삼은 누적 가입자 약 2400만 명 규모의 플랫폼으로, 20~30

대 이용 비중이 높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신규 기부자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삼점삼 플랫폼의 간편한 인증 및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한제분

# Enriching your life

대한제분은  
지난 70여년을 쉬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고객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즐기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